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하 문 식**

국문초록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혼강 상류에 위치하며,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유적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발굴조사되어 신석기 후기의 집터를 비롯하여 청동기~초기 고구려 시기에 이르는 무덤, 재구덩이, 구상 유구, 환호 시설과 토기, 석기, 뼈연모, 청동기와 철기 등 많은 유구와 유물이 찾아졌다.

이 글은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움무덤, 돌덧널무덤, 고인돌(개석식과 적석형), 돌무지무덤(단 없는, 3단) 등 41기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만발발자 유적은 구릉의 능선에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쪽에서는 무덤이, 서쪽에서는 집터와 재구덩이 등 생활 유적이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당시에 이미 공간 분할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무덤의 조성 과정을 보면 낮은 지대의 움무덤부터 점차 높은 곳으로 갈수록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이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의 구조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른 시기의 돌덧널무덤은 모난돌을 사용하여 무덤방의 벽체를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판자들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축조 방법은 다음 시기의 개석식 고인돌로 발전되어 가는 연속 과정으로 추론된다. 돌덧널무덤과 고인돌에서는 딸린방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껌묻거리를 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이며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을 이해할 수 있다.

움무덤에서는 묻힌 사람의 머리뼈가 없는 것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가 복합사회 단계였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따른 전쟁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묻는 방법에서는 어울무덤인(20호, 34호) 경우 묻힌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특이한 것도 확인되었다. 여러 사람을 여러 차례 묻기 한 움무덤(21호)과 돌덧널무덤(36호)은 핏줄을 매개로 한 가족 구성원이 한 곳에 묻힌 집단무덤으로 해석되며, 신빈 용두산과 구태 관마산 무덤과 비교된다.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움무덤을 제외한 나머지 무덤에서 화장 행위가 조사되었다. 몇몇 무덤에서는 무덤방 안에서 화장한 제자리 화장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제자리 화장의 장례습속은 길림 남부의 합달령 지역 고인돌, 태자하 유역의 동굴무덤과 고인돌에서도 조사되고 있어 서로 비교된다. 이러한 묻기는 뼈의 보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화장은 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되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만발발자 유적이 자리한 혼강 유역의 무덤에서는 중요한 매장 행위로 유행한다. 이것은 초기 고구려의 장례습속인 휘기 습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 사학과 교수 / msha@yonsei.ac.kr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무덤이 조성되었기에 여러 껍묻거리가 발굴되었다. 토기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무덤에 껴묻기된 명기를 비롯하여, 길림지역 고인돌에서 많이 찾아진 제기같은 항아리[豆形罐], 묶음 줄무늬 단지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36호 돌덧널무덤에서는 초기 고구려 토기의 정형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토기도 발굴되었다.

또 압록강 중류 지역이나 혼강 하류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변형동검이 발굴되어 문화 계승 관계를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 축조 시기는 읍무덤의 경우 서기전 7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부터 서기전 4세기까지로 볼 수 있고 돌덧널무덤과 개석식 고인돌은 서기전 4세기 초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리고 돌무지무덤은 서기전 3세기 후반 경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에] 통화 만발발자 유적, 초기 고구려 기층문화, 혼강 유역, 화장, 돌덧널무덤, 적석형고인돌, 단 없는 돌무지무덤, 변형동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만발발자 유적 무덤의 의미 |
| II. 발굴 구역과 층위 | V. 맺음말 |
| III. 발굴조사된 무덤의 성격 | |

I. 머리말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길림성 통화시 금창진(金廠鎮) 동창구(東昌區) 약진촌(躍進村)과 환통향(環通鄉) 강남촌(江南村)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1956년 혼강(渾江) 유역 지표조사 과정에 처음 찾아졌다. 당시에는 유적이 위치한 곳의 형상이 거북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王八脖子’ 유적이라고 하였지만,¹⁾ 뒤에 만발발자 유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만발발자 유적은 몇 차례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신석기 후기의 집터를 비롯하여 여러 시기의 집터, 재구덩이[灰坑], 구상 유구, 환호, 무덤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석기, 토기, 청동기, 뼈연모, 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²⁾

이러한 여러 유구와 유물 가운데에는 유적이 위치한 혼강의 지리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고구려 기원 문제,

1) 康家興, 「渾江中游的考古調查」, 『考古通訊』 6, 1956.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엮음,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19 참조(다음부터는 『이 책』이라고 함).

초기 고구려의 문화 계승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인돌을 비롯한 다양한 묘제와 장례습속은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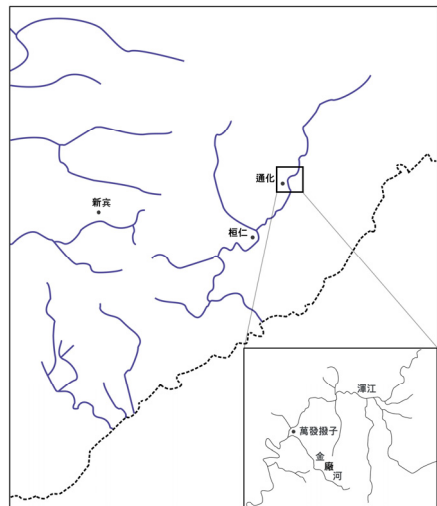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종합발굴보고서가 간행되기 이전부터 유적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단편적으로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려져 왔으며³⁾ 최근에는 발굴보고서에 관한 글이 간단히 소개되었다.⁴⁾

이 글은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여러 무덤을 통하여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서기전 6세기 경의 움무덤을 비롯한 돌덧널무덤, 개석식과 적석형 고인돌(大蓋石墓, 大蓋石積石墓), 단 없는 돌무지무덤, 3단 돌무지무덤에 대한 다양한 구조와 무덤의 변천 과정, 장례습속, 껌문거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발굴 구역과 층위

만발발자 유적은 장백산맥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능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해발 370~466m 되는 지점에 자리한다. 유적의 가운데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인위적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된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금강하(金廠河)가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 서쪽의 혼강과 합하여진다(〈지도〉 참조). 이러한 지세는 유적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넓은 유적 범위와 연차 발굴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된 동쪽과 서쪽 지역을 다시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서쪽에는 제Ⅰ구역~제Ⅳ구역이 있고, 동쪽은 제Ⅴ구역~제Ⅷ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지도〉 통화 만발발자 유적 위치도

3)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엮음, 『吉林省志: 文物志』 43, 1991, 16~17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 辦公室,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占的調查與發掘」, 『博物館研究』 2, 1997, 59~62쪽;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 『考古』 8, 2003, 32~44쪽; 金旭東·安文榮·王志敏, 「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發掘」, 『1999年中國重要考古發現』, 2001, 26~31쪽; 王綿厚,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研究』 12, 2001, 903~913쪽; 오강원,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史文化的 展開과 初期 高句麗 文化의 形成過程」, 『北方史論叢』 1, 2004, 153~171쪽; 지병목,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고구려의 국가 형성』, 동북아역사재단, 2005, 87~90쪽; 李新全,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132~133쪽; 金성철,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2009, 34~36쪽; 하문식, 「潭江 유역의 적석형 고인돌 연구」, 『先史와 古代』 32, 2010, 192~193쪽; 『고조선 사람들이 잠든 무덤』, 주류성, 2016, 76~77쪽; 華玉冰,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2011, 85쪽.

4) 이종수,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야외고고학』 37, 2020, 129~168쪽.

발굴조사 결과 산능선에 위치한 동쪽에서는 주로 무덤이 조사되었지만 나지막한 구릉지대인 서쪽은 집터를 비롯하여 재구덩이, 구상 유구 그리고 일부 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만발발자 유적은 여러 시기에 걸쳐 사람들이 점유하였지만 어느 정도 주거 공간과 무덤의 공간이 일찍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무덤이 위치한 동쪽 지역은 1999년 발굴되었다. 산꼭대기는 제Ⅷ구역과 제Ⅷ구역에 해당되고, 그 아래쪽의 능선에는 제Ⅴ구역(남쪽), 제Ⅵ구역(서쪽)이 있다. 무덤의 분포 관계를 구역에 따라 보면 움무덤은 제Ⅵ구역, 돌덧널무덤은 제Ⅴ구역·제Ⅵ구역·제Ⅷ구역, 개석식과 적석형 고인돌은 제Ⅴ구역·제Ⅷ구역·제Ⅷ구역, 단 없는 돌무지무덤은 제Ⅷ구역, 3단 돌무지무덤은 제Ⅵ구역에서 발굴되었다(〈사진 1〉).



〈사진 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원경(동쪽, 『이 책』, 사진 3-1)

서쪽 지역은 제Ⅱ구역에서 움무덤이 조사되었다.

만발발자 유적의 퇴적과 층위 관계를 보면 무덤이 많이 발굴된 동쪽 지역은 경사가 심한 편으로 서쪽 지역에 비하여 퇴적층이 얇고 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서쪽 지역은 퇴적층이 11~13개로 구분되지만 동쪽은 6~7개로 나누어진다. 특히 제Ⅷ구역과 제Ⅷ구역은 퇴적층이 대부분 쓸려 나가 유구(무덤)가 지표 바로 밑이나 현대 경작층에서 찾아졌다.

동쪽 지역에서 비교적 퇴적층이 잘 남아 있고 여러 무덤이 발굴된 제Ⅵ구역의 퇴적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층 : 회갈색층(10~30cm). 식물 뿌리 많음, 현대 경작층.

철기, 청동기, 돌그물추, 돌화살촉 출토

근대 무덤(24호, 30호, 33호) · 움무덤(32호, 52호, 53호)

재구덩이

제2층: 회흑색 가는 모래흙(10~15cm)

작은 간석기, 돌끌, 돌도끼, 돌낫, 돌화살촉 출토

제3층: 홍갈색 흙층(10~20cm)

흙가락바퀴, 흙그물추, 돌검, 돌화살촉, 돌칼 출토

제4층: 흑회색층(30~40cm)

굵은 모래 섞인 황갈색 토기조각, 여러 석기들 출토

움무덤(17~19호, 22호, 23호, 25호~28호, 31호, 49호, 50호, 54호)

돌덧널무덤(51호)

재구덩이, 집터

제5층: 회황색 가는 모래흙층(10~20cm)

니질의 회갈색 항아리, 그물추, 가락바퀴, 여러 석기들 출토

움무덤(20호, 21호)

제6층: 황갈색 흙층(10~15cm)

세석기, 굽개, 찌르개, 몸돌 출토

제7층: 황갈색 흙층(생토층?)

이와 같이 제Ⅶ구역의 퇴적 상황을 보면 제2층·제3층·제6층처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적의 지형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 곳에 사람들의 계속적인 점유로 인하여 앞 시기의 유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발굴 조사된 무덤의 성격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움무덤을 비롯하여 돌덧널무덤, 개석식 고인돌과 적석형 고인돌, 단 없는 돌무지무덤 등 여러 시기의 다양한 무덤들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무덤들은 시기를 달리 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시기별 특징은 물론 장례습속이나 껌문거리에 있어 차이점도 있지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무덤별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움무덤

만발발자 유적에서 발굴된 56기의 무덤 가운데 움무덤은 36기가 조사되었다. 36기의 움무덤에서 12기는 명(明)나라 시기에 해당되고 3기는 근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움무덤 가운데 시기적인 차이는 물론 구

조나 장례습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이다. 청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21기의 무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분포와 무덤방

움무덤의 분포 현황을 보면 유적 서쪽의 Ⅱ구역에서 4기, 동쪽의 Ⅶ구역에서 17기가 발굴되었다. Ⅱ구역은 움무덤만 조사되었고 Ⅶ구역은 움무덤 이외에도 돌덧널무덤, 돌무지무덤 등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또한 껌문거리로 보면 Ⅶ구역보다는 Ⅱ구역의 움무덤이 조금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무덤방은 평면 생김새, 크기, 방향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무덤방의 평면 생김새는 네 모서리가 둥근 긴 네모꼴, 사다리꼴(梯形), 모서리가 각진 곱자 모양의 곡척형(曲尺形)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긴 네모꼴이 17기로 가장 보편적으로 축조되었고 곡척형은 1기 뿐이다. 보고서의 서술 내용에 따르면 곡척형은 32호인데,⁵⁾ 이 무덤에는 무덤길(墓道)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⁶⁾ 하지만 자세한 무덤방의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구조에 따른 움무덤의 시기를 보면 무덤길이 있는 이 32호가 가장 늦은 시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무덤방의 평면이 사다리꼴은 17호·25호·27호 3기인데 무덤방의 평·단면도가 제시되지 않아 서로의 비교는 힘들다. 다만 27호 움무덤의 평면도를 보면 묻힌 사람의 머리쪽이 발치쪽보다 넓은 것으로 파악되기에 다른 무덤방도 대체로 27호처럼 두광족협(頭廣足夾)일 것으로 추론된다.

무덤방의 평면 생김새에 따른 구역별 분포 특징, 껌문거리, 장례습속 등에서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무덤방의 크기에 대한 것이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무덤방의 크기는 2가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무덤방의 위쪽 가장자리(墓口)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방 바닥쪽(墓底)의 크기이다. 여기에서는 무덤방의 바닥쪽 크기를 기준으로 몇 가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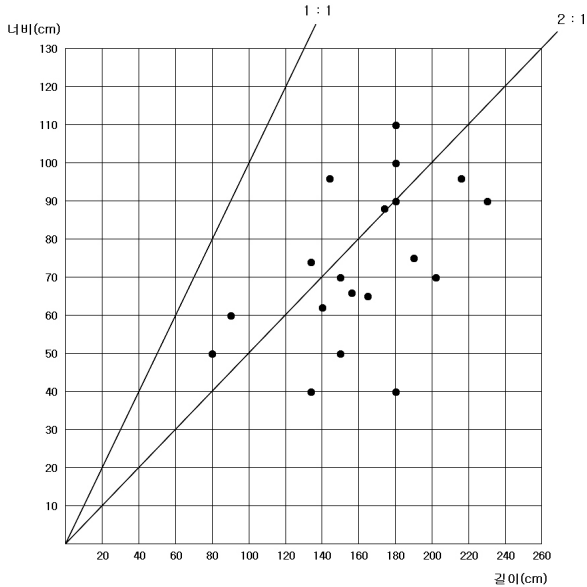
먼저 무덤방의 크기는 묻힌 사람, 묻기(葬制)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움무덤에 묻힌 사람의 나이(신장)를 보면 유아부터 어른까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방의 길이와 묻힌 사람의 나이를 서로 비교해 볼 때 17호와 50호처럼 어린 아이가 혼자 묻힌 경우에 무덤방의 크기는 특이한 점이 없이 나이에 알맞게 바로퍼묻기를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1호와 3호는 묻힌 사람이 어른이지만 무덤방의 길이가 1m 이내인데 이 무덤은 옮긴 것(遷葬)이거나 파괴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묻기에 있어서도 여러 방법(바로퍼묻기, 다리 굽혀묻기, 옆으로 굽혀묻기 등)이 사용되었는데 묻기나 묻힌 사람의 수에 따라 무덤방의 길이와 너비가 적절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무덤방의 길이와 너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포도를 만들어 보았다. 먼저 무덤방의 길이 변화에 따른 너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길이와 너비가 1:1~2:1 사이의 범위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표 1>).

5) 『이 책』, 300쪽.

6) 『이 책』, 20쪽.

〈표 1〉 옴무덤 길이와 너비의 관계



하여 서쪽과 남쪽 부분이 일부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많은 자료가 찾아져 이 시기의 무덤 성격 규명에 중요하다. 묻기는 대체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굽혀묻기가 이루어졌고 묻힌 사람 성별과 나이에 관계 없이 약 35명이 묻혔다. 이런 점에서 이 무덤은 가족공동체가 묻힌 집단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을 보면 동쪽으로 놓인 것은 대체로 무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옴무덤의 무덤방 길이와 너비에서는 일정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묻기의 다양성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무덤을 옮긴 문제, 후대의 파괴 행위 등이 그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발굴된 자료가 적어 아주 제한적이다. 긴 방향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방향에 걸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유적 주변의 구릉 흐름이나 인근의 물줄기 등 자연 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호는 다른 20기의 옴무덤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⁷⁾ 먼저 무덤방의 크기가 16.5×2.3×0.85m로 초대형이다(〈사진 2〉). 발굴 당시 재구덩이(灰坑)에 의



〈사진 2〉 21호 옴무덤 무덤방 모습(1·2호 무덤 구덩, 『이 책』, 사진 40-1·2)

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앞 글』, 2003, 32~44쪽.

방의 가운데와 남쪽에 위치하고 서쪽인 것은 북쪽에 자리한다. 그리고 무덤방의 남쪽과 북쪽에는 주로 유아이거나 어린이가 묻힌 것으로 일정한 구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묻기

묻기는 무덤이 축조된 당시 사회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강한 보수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한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은 당시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절차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례습속 가운데 묻은 방법에 대한 문제, 묻힌 사람에 관한 것, 독특한 묻기를 한 무덤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묻기는 먼저 그 방법에 있어 크게 바로퍼묻기와 굽혀묻기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굽혀묻기는 다리 굽혀묻기와 옆으로 굽혀묻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발발자 유적의 움무덤에서 묻은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9기 뿐이다. 이 가운데 옆으로 굽혀묻기(側身屈肢葬)는 1기(18호) 밖에 없고 나머지는 바로 퍼묻기(仰身直肢葬)(17호와 50호)나 다리 굽혀묻기(仰身屈肢葬)이다. 그런데 다리 굽혀묻기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특징은 묻힌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이 묻힌 18호 움무덤의 경우 같은 무덤 방에서도 서로 다르게 묻은 방법이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자료가 부족하여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덤방에 묻힌 사람의 수에 따라 홀무덤(單人葬)과 어울무덤(多人葬)으로 구분된다. 확인된 14기 가운데 홀무덤이 9기로 많고 나머지는 어울무덤인데 하나의 무덤방에 두 사람이 묻힌 것이 4기이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1호에는 35명이 집단적으로 묻힌 특수한 경우다.

그리고 묻힌 사람의 머리뼈가 없는 무덤도 6기나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무덤을 한 번 옮긴 경우(3호)도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머리뼈는 다른 사지뼈보다 비교적 보존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무덤 방에는 대부분 사지뼈를 비롯한 다른 부위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점에서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머리뼈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머리뼈가 없는 무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묻힌 사람이 거의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머리뼈가 남아 있지 않는 주검의 경우 ‘죽음의 경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이 남성인 점에서 당시 사회 배경과 관련지어 볼 때 전쟁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⁸⁾

다음은 움무덤에 묻힌 사람에 관한 것으로 나이와 성별(性別) 문제이다. 남성과 여성이 따로 묻힌 홀무덤 일 경우 뚜렷한 특징은 없지만 어울무덤인 4호가 주목된다. 4호 움무덤에는 성인 여성(35살쯤)과 영(유)아가 함께 묻혀 있다. 이렇게 한 무덤방에서 여성과 영아가 조사된 경우 이들은 모자(母子)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 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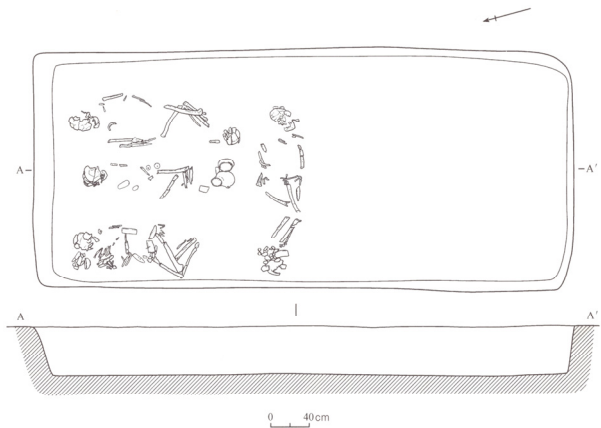
8) 만발발자 유적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태자하 유적의 동굴무덤(마성자 A동굴 25호 무덤)에서는 허벅지에 화살촉이 박혀 있었는데 이것을 당시 사회상과 연관시켜 전쟁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994, 43쪽).

橋口達也, 『彌生時代の戦い-戦いの實態と權力機構の生成』, 雄山閣, 2007, 제2장 〈표 1〉 참조.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기와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달성 진천동 고인돌 유적의 3호 돌널에서도 이와 같이 모자가 묻힌 무덤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⁹⁾

움무덤에 묻힌 사람의 나이는 35명이 묻힌 집단무덤인 21호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곳에 묻힌 35명 가운데 나이를 알 수 있는 주검은 34구이다. 묻힌 사람의 뼈를 통한 나이의 추정에 따라 구분해 보면 10살 미만인 어린이가 17구, 25살 이상인 어른이 17구로 나누어진다.¹⁰⁾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의 사망 비율이 비슷한 것은 당시 사회에 어린 아이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嬰兒, 1~2세)¹¹⁾가 묻힌 것이 8구나 조사되어 당시 사회의 인구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높은 영아 사망률은 출산 과정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장 단계에서 영양이나 양육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1호 움무덤의 어린이나 어른의 무덤방에서 출토된 껌문거리나 묻은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장례습속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의 사회적 지위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

20호 움무덤은 묻은 방법에 있어 특이한 점이 찾아진다. 어른 4사람을 곁혀묻기로 묻었는데 구릉의 등고선과 나란히 3사람을 묻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발끝 쪽에 자리하여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즉 3사람의 머리 방향은 북쪽이고 다른 사람은 동쪽이다(〈그림 1〉). 이러한 주검의 배치 모습은 만발발자 유적에서 유일한 것으로 주변 유적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림 1〉 20호 움무덤 무덤방 모습(『이 책』, 264쪽)

이 무덤에서 확인되는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먼저 어울무덤인 다른 움무덤과는 달리 어린이는 없고 모두 어른이 묻혔다는 점이다. 머리가 북쪽으로 놓인 세 사람 가운데 맨 동쪽과 가운데 사람은 각각 남·여인데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있어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청동검과 검집이 껌문기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 몫이 아니고 서로 나누어져 있어 주목된다. 청동검은 머리 방향이 북쪽인 가장 동쪽에 묻힌 사람의 오른쪽 팔꿈치 옆에 놓여 있었고 검집은 발끝 쪽에 자리한 사람의 왼쪽 손 옆에 있었다. 동검과 검집이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분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검집이 껌문기된 사람은 이 움무덤에 묻힌 다른 사람과 위치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9) 강인구, 「達城 辰泉洞의 支石墓」, 『韓國史研究』 28, 1980, 52~54쪽.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앞 글」, 2003, 43~44쪽.

11) 영아에 대한 개념과 나이의 범위는 학문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양학에서는 그 범위를 1~3세로 보고 있지만(채범석·김을상, 『영양학사전』, 아카데미 서적, 1998, 296쪽) 심리학에서는 출생한 다음 2세까지를 영아의 범주에 넣는다(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266쪽).

(3) 꺼문거리

만발발자 유적의 움무덤에서는 26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많은 유물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 확인된 유물은 토기, 석기, 뼈연모, 청동기, 옥기, 치레걸이, 짐승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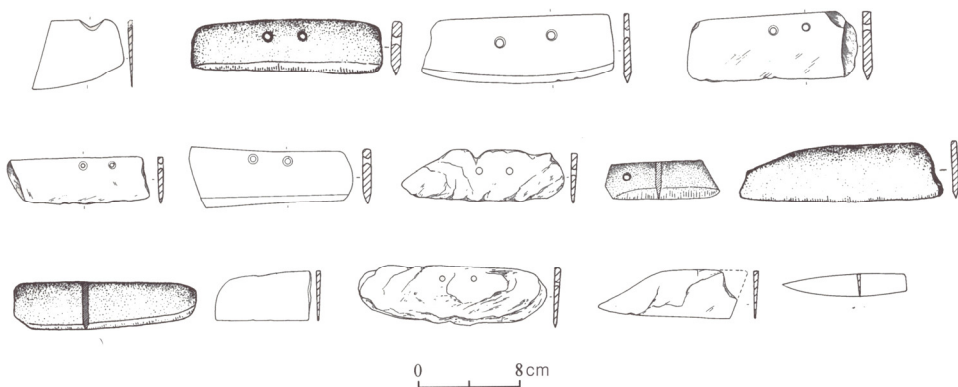
먼저 유물의 일반적인 특징, 묻힌 사람의 위치에 따른 꺼문거리의 종류, 시간에 따른 꺼문거리의 변화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토기는 바탕흙이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처럼 모래가 많이 섞인 홍갈색이나 회갈색 민무늬이다. 구운 온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부 움무덤에서는 토기의 겉면을 간 흔적이 있는 붉은색이나 검은색 토기도 있다. 토기의 기형은 항아리, 단지, 바리, 사발 등으로 나누어지며 항아리+단지+바리 또는 항아리+단지+사발 등으로 서로 짝을 이루어 무덤방에 꺼묻기 되었다.¹²⁾

항아리는 손잡이에 따라 1차로 구분되며 몸통 부분이 풍만하고 밑은 납작하거나 얇은 굽이 있다. 단지는 아가리의 모습에 따라 곧은 것(直口), 벌어진 것(敞口), 넓은 것(侈口)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몸과 몸통 부분이 맞닿는 곳에는 돌을띠무늬(突帶文)가 있으며 손잡이는 가로 방향과 젓꼭지 모양이 섞여 있다.

그물추는 돌로 만든 것도 있지만 흙으로 빚은 것이 많은 편이다. 흙그물추의 긴 방향 가운데에는 줄을 묶기 쉽게 오목한 홈이 파여 있다.

석기는 화살촉, 끌, 칼, 자귀 등 사냥이나 공구용 연모가 많이 조사되었다. 이들 석기들은 많이 갈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특히 돌칼은 그 형태가 다양한 편이고 날 부분을 보면 많이 사용하여 무딘 흔적이 뚜렷이 관찰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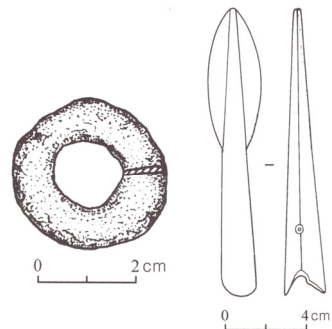
〈그림 2〉 21호 움무덤 출토 여러 돌칼(『이 책』, 279쪽)

뼈연모 가운데 화살촉이 21호 움무덤에 200여 점이나 꺼묻기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찾아진 것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17호 무덤구덩이에서는 나무로 만든 화살통이 발굴되어 이

12) 『이 책』, 511쪽.

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청동기는 검(20호)을 비롯하여 투겁창과 단추(54호), 거울(27호), 팔찌와 치레걸이(21호) 등 여러 가지가 조사되었다. 투겁창의 위쪽 끝부분은 버들잎처럼 아주 납작하며, 가운데 부분의 양쪽에는 묶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다. 청동 거울은 뒷면에 꼭지가 1개 달려 있고 2점이 조사되었는데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거푸집을 이용하였던 것 같다(〈그림 3〉).



〈그림 3〉 움무덤 출토 청동기
(21호: 팔찌, 54호: 투겁창, 『이 책』, 284쪽; 307쪽)

비교적 어린 아이가 많이 묻힌 집단무덤인 21호에서는 조가비로 만든 치레걸이가 다른 움무덤보다 많이 찾아져 주목된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어린이가 무덤에서 보편적으로 꺼묻거리가 많이 찾아지는 장례습속의 전통과 서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특히 21호 움무덤의 22호 무덤구덩이에서는 바다에 서식하는 고막(海蛞蝓)으로 만든 치레걸이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짐승뼈도 많이 꺼묻기되어 있었다. 21호 움무덤의 26호 무덤구덩이에서는 개머리뼈가 찾아졌고 여러 움무덤에서는 멧돼지 이빨이나 어깨뼈로 만든 치레걸이, 멧돼지 아래턱뼈 등이 꺼묻기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멧돼지뼈는 상당히 많은 무덤에서 발굴되었는데 이러한 멧돼지뼈는 같은 시기의 서단산문화 관련 유적이거나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조사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짐승뼈다.¹³⁾ 따라서 만발발자 유적의 움무덤에 꺼묻기된 멧돼지뼈는 이런 유적들과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무덤에 꺼묻기된 유물을 통하여 주검의 위치와 자리한 유물과의 상관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발발자 움무덤에서 꺼묻거리가 자리한 모습을 보면 묻힌 사람의 머리쪽에는 향아리·바리 등의 토기류, 주검의 위쪽으로는 꾸미개와 공구류, 허리나 허벅지 옆에는 무기류나 생산 공구, 발치 쪽에는 토기류나 짐승뼈 등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주검의 위치에 따른 꺼묻거리의 배치는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당시 사회의 장례습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공구류나 무기류 등은 묻힌 사람이 주로 살아 생전에 사용하던 모습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움무덤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토기와 화살촉을 보면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토기에서 관찰되는 것은 대체로 늦은 시기에는 바탕흙이 고운 빨이면서 토기의 겉면을 간 흔적이 뚜렷하고 색깔은 붉은색이나 검은색(磨光黑陶)을 띠는 것 같다. 그리고 화살촉은 삼각만입촉에서 숟배가 있는 것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움무덤은 대체로 서기전 7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부터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꺼묻거리를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시기 구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13) 董學增,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3, 255~257쪽; 하문식, 『앞 책』, 2016, 407~408쪽.

2. 돌덧널무덤[石槨墓]

만발발자 유적에서 무덤의 구조와 시기, 장례습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돌덧널무덤¹⁴⁾ 12기가 발굴되었다. 이들 돌덧널무덤은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움무덤과 고인돌의 무덤방에서 찾아지는 몇 특징과 비슷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1) 위치와 무덤방 구조

표토층 바로 밑에서 발굴된 돌덧널무덤의 분포 양상은 움무덤과 조금 다른데 주로 V구역에 집중 분포(9기)하고 나머지는 VI구역(2기)과 VII구역(1기)에 자리한다. 움무덤이 주로 VI구역에 분포하는데 비하여 돌덧널무덤이 V구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만발발자 유적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여 움무덤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돌덧널무덤은 집터나 재구덩이가 없거나 적은 독립된 구역에 축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물로 보아 좀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돌덧널무덤도 V구역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36호를 제외한 나머지 돌덧널무덤의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축조 과정을 보면 먼저 무덤 구덩이를 판 다음 주로 모난돌을 쌓아서 무덤방의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판자돌을 놓거나 자갈돌을 깔았다. 뚜껑돌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36호·45호와 46호에서만 조사되었다. 그런데 36호 돌덧널무덤의 뚜껑돌 설치의 좀 특이하다. 무덤방의 맨 위에 운모 혈암의 판자돌 7매를¹⁵⁾ 놓고 그 위에 다시 모난 큰 돌을 덮어 놓은 이중 뚜껑돌의 모습이다. 이렇게 뚜껑돌을 이중으로 설치한 것은 고인돌 유적에서 조사되고 있는 ‘다층 개석’과는 구조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¹⁶⁾ 무덤방을 폐쇄한다는 관점에서는 서로 비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검을 묻는 방법이나 처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무덤방의 길이나 너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1호 돌덧널무덤의 경우 묻힌 사람이 4~5살 되는 어린이이고 주검을 그대로 처리한 결과 무덤방의 길이가 44cm 밖에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바로퍼묻기를 한 53호와 55호의 무덤방 길이가 120cm 안팎인 점으로 보아 묻힌 사람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앞에서 설명한 움무덤과는 차이가 있다. 돌덧널무덤의 긴 방향은 대체로 북동-남서 축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무덤들이 한 곳(V구역)에 집중된 양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무덤이 자리한 V구역의 주변 지형이 너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세에 따른 긴 방향과의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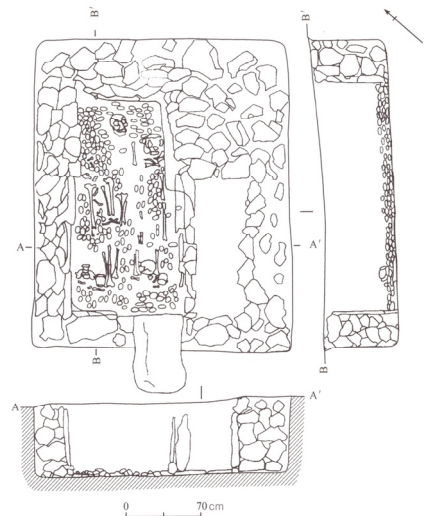
한편 36호는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다른 돌덧널무덤과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조 방식을

14) 발굴보고서에서는 돌널무덤[石槨墓]이라고 하였지만(『이 책』, 307쪽) 무덤방을 이룬 돌의 생김새(꺾돌이나 강돌), 축조 수법(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쌓은 점)으로 볼 때 ‘돌덧널무덤’으로 판단된다.

15) 발굴보고서에서는 판자돌을 7층(겹)으로 덮었다고 하였지만(『이 책』, 392쪽), 무덤방의 전체 깊이나 구조로 볼 때 쌓은 것이 아니고 펼쳐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16) 대표적으로 창원 덕천리 고인돌 유적과 보성 동촌리 고인돌 유적을 들 수 있다.

보면 이 무덤은 먼저 모난돌을 가지고 4벽을 쌓아 덧널(石槨)을 만든 다음 그 안쪽에 다시 판자돌을 세워 4벽을 만들고 맨 아래쪽 바닥에 넓적한 돌을 깔아 돌널(石棺)을 만든 특이한 양상이다.¹⁷⁾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를 지닌 무덤이 조사된 예가 없어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돌널과 돌덧널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에 나타난 특이 구조로 판단된다. 무덤방의 동남쪽에서는 판자돌을 이용하여 작은 돌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덤방에 딸린 널로 여겨진다. 이러한 딸린 널은 동북지역의 고인돌이나 한반도의 돌널무덤에서도 조사되고 있어¹⁸⁾ 비슷한 시기의 무덤 구조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곳에서 개 한 마리에 해당하는 뼈가 찾아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장례습속과 관련있는 무덤의 한 구조로 판단된다. 또 무덤방의 남벽 끝에 바깥쪽으로 길이 75cm 되는 판자돌이 1매 놓여져 있었다. 무덤의 구조에서 볼 때 이 판자돌은 돌널이나 돌덧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묻기 과정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4〉 36호 돌덧널무덤 무덤방
(맨아래층, 『이 책』, 394쪽)

(2) 묻기

12기의 돌덧널무덤을 발굴조사한 결과 묻기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확인되어 당시 사회의 장례습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돌덧널무덤에서 주검을 처리한 방법은 바로퍼묻기와 굽혀묻기로 나눌 수 있으며, 굽혀묻기에는 옆으로 굽혀묻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묻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굽혀묻기와 바로퍼묻기는 서로 4기로 비슷하다. 다만 굽혀묻기에서 찾아지는 특징으로는 묻힌 사람의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복부에 얹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움무덤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돌덧널무덤 가운데 비교적 시기가 좀 늦은 44~46호, 36호에서는 화장(火葬)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화장은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에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보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¹⁹⁾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의 고인돌이나 동굴무덤에서는 이러한 화장으로 묻기를 한 경우가 많이 조사되고 있어 그 당시의 장례습속에 있어 일반적인 한 행위로 보인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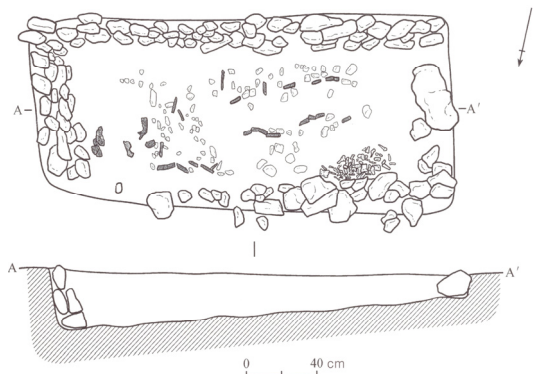
17)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을 “石槨石棺墓”라고 한다.

18) 旅順博物館, 「遼寧大連新金縣碧流河大石蓋墓」, 『考古』 8, 1984, 709~711쪽; 許玉林·崔玉寬, 「鳳城東山大石蓋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0, 2~8쪽; 崔玉寬, 「鳳城東山·西山大石蓋墓1992年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7, 32~33쪽; 지건길, 「청동기시대의 유적: 무덤」,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7, 166~167쪽.

19) Tainter, J. A., “Mortuary practices and the study of prehistoric social systems”,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1978, p. 126.

만발발자의 돌덧널무덤에서 찾아진 화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화장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44~46호는 무덤방 안에서 숯, 불탄 나무 조각이 찾아지고 무덤방의 벽으로 보아 주검을 놓고 이곳에서 제자리 화장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36호의 경우 한 무덤방 안에 주검을 3층으로 구분하여 여러 사람을 묻었는데 맨 위층과 가운데 층은 화장을 하였지만 밑층은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의 주검이 발굴되었다. 이렇게 같은 무덤방 안에서도 화장을 진행한 과정에 차이가 있어 주목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습속으로 보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에 따른 특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36호의 맨 위층과 가운데 층에서 발굴된 사람뼈를 보면 주검의 전신(全身)을 화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 맨 위층은 주검의 아래쪽, 가운데 층은 위쪽-하였는데 이것도 주검의 처리 과정에 있어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44호의 경우 무덤방의 가운데에 화장을 한 1구의 주검이 놓여 있고 그 오른쪽 다리 부분에 화장을 한 뼈 더미가 놓여 있었다(〈그림 5〉). 이 뼈 더미는 화장을 한 다음(아마도 무덤방 밖에서 한 것으로 보임) 뼈만 골라 이곳에 묻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 뼈 더미에 묻힌 사람은 가운데 놓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껍묻거리가 발견되지 않아 서로의 관계 설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길림 남부의 동풍(東豐)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개석식 고인돌(大蓋石墓)이나 요동반도 지역의 강상과 누상 돌무지무덤의 무덤방 구조와 문기를 참고할 수 있다.²¹⁾ 이들 자료와 비교하면 여러 사람을 화장한 다음 함께 묻힌(多人葬) 사람뼈가 찾아졌기 때문에 무덤방에 묻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복잡사회 단계인 만큼 어느 정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 신분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5〉 44호 돌덧널무덤 무덤방(『이 책』, 389쪽)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움무덤에서는 화장 행위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돌을 가지고 만든 석묘(石墓)에서는 이런 장례습속이 찾아지고 있어 주목되며, 이것은 고조선 시기의 특징 있는 문기의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돌덧널무덤에 묻힌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먼저 묻힌 사람의 나이를 보면 40호의 경우 40세 안팎의 어른이고 51호는 5살 정도 되는 어린이였다. 성별은 12기의 돌덧널무덤 가운데 4기를 알 수 있는데 1기가 남성이고(40호) 나머지는 모두 여성으로 밝혀졌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돌덧널무덤에 묻힌 사람은 성적 차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 하문식, 「고조선 시기의 장제와 껍묻거리 연구」, 『白山學報』 83, 2009, 75~78쪽.

21) 金旭東, 「1987年吉林東豐南部蓋石墓調查與清理」, 『遼海文物學刊』 2, 1991, 12~16쪽;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雙砣子與崗上』, 科學出版社, 199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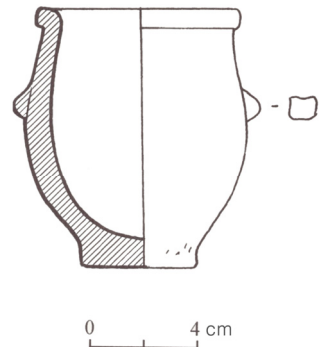
무덤에 묻힌 사람의 수는 흙무덤이 8기로 어울무덤보다 많다. 어울무덤 가운데 36호는 다인다차장(多人多次葬)의 특이한 묻기를 하였다. 즉 하나의 무덤방 안에 3층으로 나누어 묻기를 하였다. 각 층마다 2사람씩 묻었는데 바닥은 자갈돌을 깔아 층이 구분되게 하였다. 맨 아래층에서 조사된 사람뼈를 보면 남녀로 확인되어 각 층에 묻힌 사람은 부부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은 각 층마다 차이가 있는데 위층은 남쪽이고 가운데층과 아래층은 북쪽이다.

이렇게 한 무덤방 안에서 묻힌 사람의 친연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머리 방향이 서로 다르고 화장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은 특이하다.

(3) 꺼묻거리

돌덧널무덤에서 발굴된 꺼묻거리는 흙무덤에 비하여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단계에 축조한 무덤들이 몇 기 있기 때문에 꾸미개나 치레걸이가 많은 편이다.

토기는 바탕흙에 모래가 많이 들어간 적갈색이나 홍갈색 계통, 고운 찻을 이용한 검은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형에 따른 특징을 보면 주로 항아리는 세로손잡이가 쌍으로 달려 있고, 단지는 가로손잡이가 붙어 있다. 드물게 아가리가 큰 바리도 찾아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55호 돌덧널무덤에서는 단면이 원형인 겹입술 항아리가 1점 발굴되었다(〈그림 6〉).



〈그림 6〉 55호 돌덧널무덤 출토 겹입술 항아리(『이 책』, 315쪽)

석기는 흙무덤에서 많이 나오던 화살촉이 거의 찾아지지 않으며 대신 돌낫과 돌칼 등 곡물의 수확과 관련 있는 것들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생산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다.

청동기는 청동팔찌(55호와 56호), 청동검(45호), 청동단추(48호), 동전(36호) 등이 발굴되었다. 청동검은 몸통 부분만 남아 있는 조각이지만 몸통의 단면(마름모꼴)이나 양쪽에 피홈이 있어 좀 늦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전은 둥근꼴로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깨어진 상태이며 가운데에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겉면에는 동전으로서의 어떤 흔적(문자?)이 없다. 보고자는 이것을 동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²²⁾ 만발발자 유적의 돌덧널무덤에서 치레걸이와 꾸미개가 많이 나온 점, 끈으로 매달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것의 쓰임새를 다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치레걸이는 옥이나 돌로 만든 구슬이 많이 찾아졌고 42호에서는 돼지 이빨로 만든 것이 발굴되었다.

한편 주검의 위치에 따라 꺼묻거리가 놓인 자리를 보면 흙무덤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머리쪽에는 주로 단지와 항아리 등의 토기류가, 다리쪽은 돌낫, 돌끌, 돌칼 등 주로 공구류나 수확용 연모가 꺼묻기되어 있었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찾아진 꺼묻거리를 보면 돌덧널무덤에서도 약간의 시기적인 폭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44호~46호, 36호는 다른 무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2) 『이 책』, 395쪽.

3. 고인돌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개석식 고인돌[大蓋石墓] 4기와 적석형 고인돌[大蓋石積石墓] 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고인돌은 근래에 요북지역이나 태자하·휘발하·혼강 유역에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무덤보다도 초기 고구려의 문화상(文化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분포와 구조

고인돌은 V·VII·VIII구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V구역은 돌덧널무덤이 집중 분포하는 곳으로 이곳에 적석형 고인돌(41호)이 자리한다. 그리고 VIII구역에는 움무덤이나 돌덧널무덤 없이 개석식 고인돌(34호와 35호)과 단 없는 돌무지무덤[無壇石壙積石墓]이 함께 있다. VIII구역에는 개석식과 적석형 고인돌 3기가 분포한다. 이처럼 구역별 고인돌의 분포 양상을 보면 뚜렷한 차별화는 없는 것 같다.

고인돌의 덮개돌 재질은 거의가 백운암(白雲岩) 계통이며, 크기는 길이가 340cm(41호)부터 152cm(43호)까지 다양한데 이것은 암질의 깨어지는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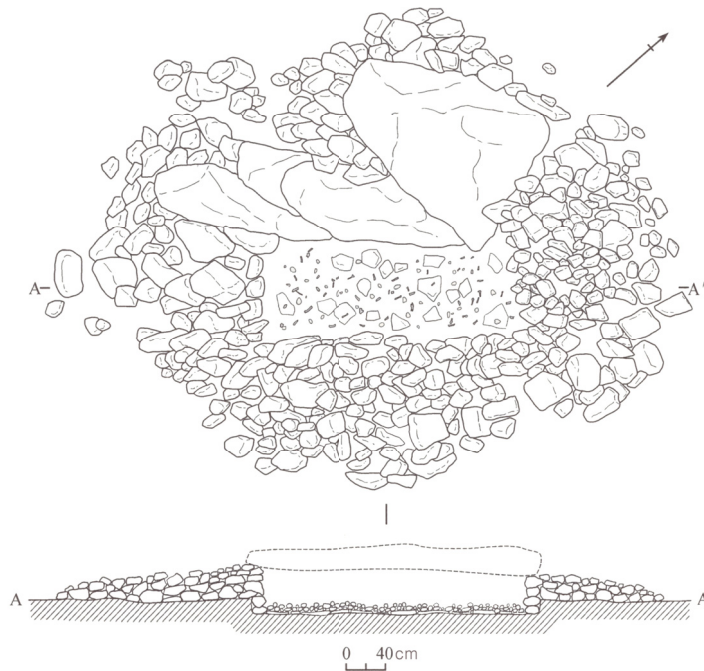
적석형 고인돌의 경우 돌무지의 평면 생김새는 모줄인 네모꼴(38호)과 타원형(41호)으로 구분되며, 그 범위는 신빈이나 환인 지역에서 기초사된 같은 유형의 고인돌처럼²³⁾ 덮개돌의 가장자리 밖에까지 연결된다. 이것은 늦은 시기의 고인돌일수록 무덤방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보다 밀폐되고 튼튼한 구조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방을 축조한 방법을 보면 형식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난돌이나 강돌을 쌓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먼저 개석식인 35호 고인돌은 북쪽과 서쪽 벽은 돌을 쌓았고, 동쪽은 길쭉한 돌 2매로 벽을 만들었으며 남벽은 맨땅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41호의 경우 3벽은 쌓았지만 나머지 한 쪽은 1매의 큰 돌을 사용하였다(〈그림 7〉). 바닥은 35호 고인돌만 맨바닥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돌을 깔아 놓았다. 그리고 39호와 41호는 바닥에 깐 강돌 바로 아래에 혈암의 판자돌이 놓여 있어 무덤방 축조에 다른 고인돌보다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8〉).

한편 만발발자 유적의 여러 무덤 가운데 고인돌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덤방 옆의 딸린방이다.²⁴⁾ 딸린방은 3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석식에서는 모두 조사되었다. 딸린방의 위치를 보면 34호는 무덤방 바깥에 독립적으로 있지만 35호와 43호는 무덤방의 짧은 벽을 이용하여 안쪽에 만들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만든 방법은 납작한 판자들을 세워 벽을 이루었는데 43호 고인돌의 경우는 아주 조잡한 모습이다. 35호 고인돌의 딸린방에서는 불탄 흔적이 찾아졌고 묶음 줄무늬가 있는 토기 조각과 단지가 깨물기되어 있었다. 34호에서는 여러 개체의 불탄 사람뼈와 토기조각, 돌화살촉이 조사되었다.

23) 하문식, 「中國 遼北지역 고인돌의 성격」, 『先史와 古代』 40, 2014, 10~17쪽.

24) 딸린방(널, 덧널)은 무덤방(오편널)에 상대되는 의미로 만발발자 보고서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附棺(34호)”, “頭箱(35호와 43호)” 등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이 책』, 317; 319; 3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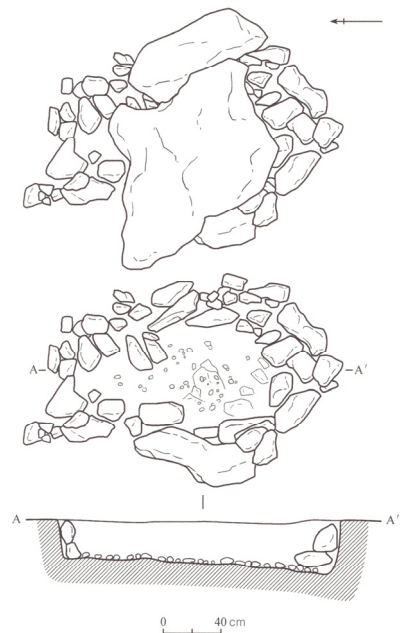
〈그림 7〉 41호 적석형 고인돌 무덤방(『이 책』, 398쪽)

이러한 딸린방이 36호 돌덧널무덤에서도 발굴되었다. 이 딸린방도 고인돌 경우처럼 1차적으로 껌묻거리를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묻기

만발발자 유적의 고인돌에서 두드러지는 묻기는 화장과 특이한 매장 습속이다.

발굴조사에서 화장은 적석형 고인돌인 38호와 41호, 개석식인 34호와 35호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무덤방 안에서 화장을 한 경우는 38호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한 다음 뼈를 골라 묻기를 하였다. 다만 35호는 딸린방에서 불탄 흔적이 찾아져 이곳에서 직접 화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1호는 천장한 무덤으로 옮긴 다음 화장을 한 것 같다. 34호는 무덤방(으뜸방)의 서쪽에서 화장된 어린이 머리뼈와 딸린방에서 불탄 여러 개체의 사람뼈가 조사되었다.



〈그림 8〉 39호 개석식 고인돌 무덤방(『이 책』, 3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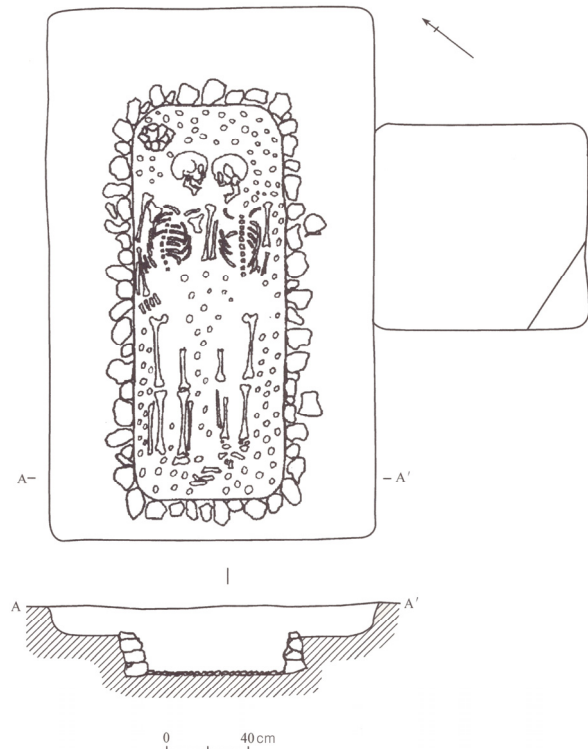
화장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과 대상의 차이는 다른 유적들과 비교된다. 34호처럼 묻힌 사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화장은 36호 돌덧널무덤에서도 확인되었다. 또 제자리 화장을 하여 불탄 뼈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38호는 같은 고인돌 유적인 신빈 용두산 2호와²⁵⁾ 화장의 방법을 비롯하여 고인돌의 구조와 형식이 매우 비슷하다.

화장은 돌덧널무덤은 물론 고인돌보다 늦은 시기의 단 없는 돌무지무덤에서도 찾아져 이러한 장례습속은 만발발자 유적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다.

매장 습속에 있어서는 34호 개석식 고인돌이 주목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고인돌은 무덤방 옆에 딸린방이 있고 묻힌 사람은 여러 개체로 일부 화장을 하였다. 먼저 무덤방에는 부부로 보이는 어른의 주검을 바로펴묻기하였고 서로는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서쪽에 묻힌 남자의 머리쪽에 10살쯤 되는 어린이의 화장된 머리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동쪽의 딸린방에는 운모혈암의 바닥돌 위에 화장된 사람뼈가 다량으로 쌓여 있었다.

이러한 묻기의 모습은 다른 무덤들과 비교된다. 먼저 부부가 얼굴을 마주한 것은 만발발자 유적의 20호 움무덤에서도 조사된 예가 있다. 그리고 같은 무덤에서도 묻기의 방법이 다른 것(부분 화장)과 화장한 뼈를 쌓아 놓은 것은 구태 관마산 1호 무덤과²⁶⁾ 여러 가지로 유사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34호에 묻힌 사람들은 장례 습속을 통해 보았을 때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먼저 무덤방(으뜸방)에 묻힌 부부와 어린이의 관계 문제다(〈그림 9〉). 묻은 방법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한 곳에 같이 있다는 점,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한 가족(부자간)으로 보인다. 물론 묻힌 시기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른이 먼저 묻히고 어린이는 화장된 그 다음 묻힌 것으로 여겨진다. 딸린방의 화장된 뼈는 성별이나 나이, 개체 수를 알 수 없지만 판자돌의 크기(길이 110cm, 너비 100cm)와 불탄 사람뼈의 쌓인 두께(10~15cm)로 볼 때 여러 개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묻기가 44호 돌덧널무덤에서도 찾아



〈그림 9〉 34호 개석식 고인돌 무덤방(『이 책』, 318쪽)

25) 自景全, 「新賓旺清門鎮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 2010, 143쪽.

2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九臺市石砬山·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 4, 1991, 342쪽.

졌다. 그렇다면 34호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으뜸방의 부부와 어린이, 딸린방의 여러 개체와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으뜸방은 한 가족으로, 딸린방에 묻힌 사람은 으뜸방의 사람들과 일정한 신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신분 관계는 무덤이 축조된 당시의 시기나 사회상으로 볼 때 계층분화나 신분제가 있었던 복합사회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무덤을 통한 만발발자 유적에서의 이러한 신분 관계는 20호 움무덤, 44호 돌덧널무덤과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

(3) 꺼묻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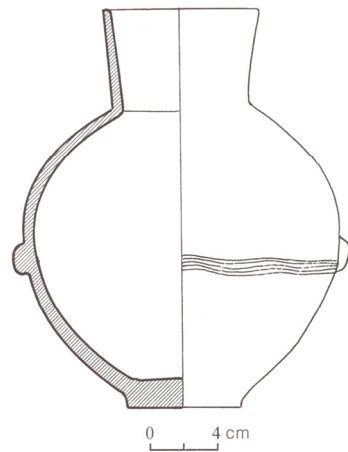
만발발자 유적의 고인돌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인돌 유적처럼 꺼묻거리가 그렇게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것으로는 토기, 석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청동기와 철기가 있다.

먼저 토기를 보면 항아리와 단지가 찾아졌는데 적석형 고인돌에서는 손잡이(2쌍의 가로손잡이와 띠모양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아가리가 벌어진 모습이면서 대부분 가로손잡이가 위치한 몸통의 가운데가 배부른 모습이다. 또 35호 개석식 고인돌에서는 묶음 줄무늬가 있는 토기조각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그림 10〉). 토기의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는 조각이라 미송리형 토기와와의 연관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사하는 점이 많다. 그리고 34호에서 조사된 굽은 모래 질의 홍갈색을 띠는 제기같은 항아리[豆形罐]가 주목된다. 이러한 기형은 길림 남부지역의 보산문화 관련 동봉 보산촌 동산 개석식 고인돌에서도²⁷⁾ 찾아져 서로 비교되며 고인돌의 형식이나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다.

석기는 화살촉을 비롯하여 가락바퀴, 돌도끼 등이 있다. 화살촉은 모두 스페 부분이 있어 만발발자 유적의 늦은 시기 움무덤에서 조사된 것과 비교되며 시기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돌도끼는 간단한 띠개를 배푼 길쭉한 막대기 형태와 돌보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허리 부분을 많이 손질한 것 등이 발굴되었다.

이밖에도 41호 적석형 고인돌에서는 청동조각과 쇠괘이가 1점씩 찾아졌다. 고인돌 유적에서 이러한 쇠괘이가 조사된 것은 무순 하협심 2호 고인돌 유적이²⁸⁾ 있다. 이 쇠괘이의 형태나 크기로 볼 때 서로는 아주 비슷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적석형 고인돌이 개석식 고인돌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으로 판단되며, 단 없는 돌무지무덤의 꺼묻거리와 비교된다.



〈그림 10〉 35호 개석식 고인돌 출토 단지
(『이 책』, 321쪽)

27) 金旭東, 『앞 글』, 1991, 16~17쪽.

28) 熊曾龍 等, 『撫順河夾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館刊』 3, 2008, 334~341쪽.

4. 돌무지무덤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단 없는 돌무지무덤(37호)과 3단 돌무지무덤(29호)이 서로 1기씩 발굴되었다.

37호는 구지표(舊地表)의 가장자리에 큰 돌을 네모꼴로 덩성덩성 놓고 그 안에 높이가 50cm쯤 되게 잔돌을 쌓아 만든 단 없는 돌무지무덤이다. 이처럼 가장자리에 큰 돌을 놓은 것은 돌무지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사시대의 구조물인 묘역식 고인돌이나 돌돌림 유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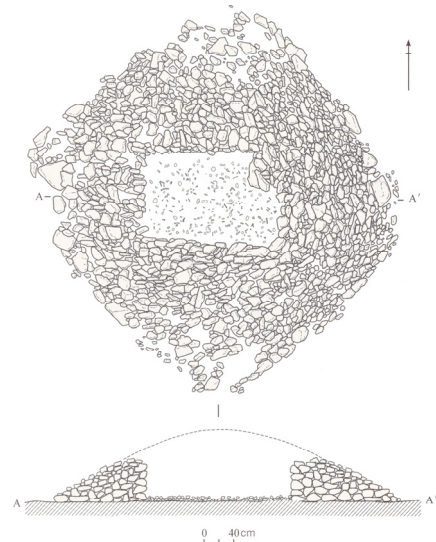
돌무지의 크기는 가로 480cm, 세로 500cm로 평면 생김새는 네모꼴이다. 그런데 돌무지의 평면에 따라 압록강 유역의 초기 돌무지무덤의 발전 과정을 보면²⁹⁾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타원형이나 둥근꼴이고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네모꼴이나 긴 네모꼴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만발발자 유적의 단 없는 돌무지무덤은 아주 이른 시기의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무덤방은 돌무지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바닥에는 잔돌을 깔아서 만들었는데 지상무덤(地上墳)의 모습이다.

묻기는 무덤방을 마련한 다음 여러 개체의 주검과 껍묻거리를 넣고 제자리에서 화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 결과 사람뼈는 회백색으로 변하였고 유물은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화장을 하는 과정에 제자리(무덤방)에서 직접한 것은 적석형 고인돌, 돌덧널무덤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만발발자 유적의 여러 무덤에서는 이러한 장례습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껍묻거리는 무덤방 안에서 녹송석으로 만든 구슬과 귀마개, 가락바퀴, 청동기 조각이, 돌무지에서는 띠모양 손잡이가 달린 향아리가 찾아졌다.

29호는 VI구역에 위치하며 3단으로 만든 돌무지무덤이다. 평면 생김새는 북동쪽이 조금 튀어 나온 네모꼴이다(그림 12). 무덤의 축조 방법을 보면 맨아래층은 길이 6.5m, 너비 6m의 돌무지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50cm씩 들어서 단(段)을 축조하였다. 무덤방은 모난돌로 만든 돌덧널이며 바닥에는 자갈을 깔았고 뚜껑돌이 있었다. 북동쪽의 이 평대(平臺) 시설은 남북 235cm, 동서 150cm이며 무덤처럼 모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구조와 위치, 축조 방법 등 무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단 시설로 해석하기도 한다.³⁰⁾

무덤방에는 5명 안팎의 어른과 어린이를 두벌묻기로 묻었다. 그런데 묻기에 있어 특이한 점은 세골된 뼈를 골라 무덤방에 부위별로 묻는 간골장(揀骨葬)을 하였다는 것이다.³¹⁾ 즉 무덤방의 동쪽에는 머리뼈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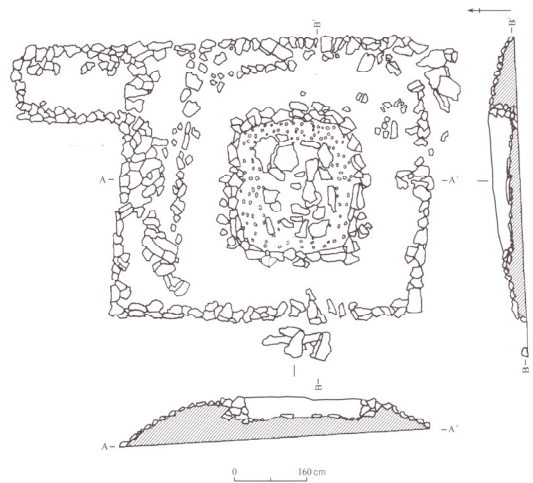
〈그림 11〉 37호 단없는 돌무지무덤
(『이 책』, 400쪽)

29) 李新全, 「遼東地區積石墓의演變」, 『東北史地』 1, 2009, 3~4쪽.

30) 『이 책』, 464쪽.

쪽에는 사지뼈를 놓았다. 이런 문기는 과정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길림 남부의 동풍 지역 고인돌에서 널리 유행한 간골화장과 비교된다.³²⁾

한편 29호 돌무지무덤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껌문거리 가운데에는 쇠 팽이를 비롯하여 화살촉, 손잡이 모양 고리 등 여러 철기와 납구슬, 흙가락바퀴 등이 있다.



Ⅲ. 만발발자 유적 무덤의 의미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움무덤을 비롯하여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 등 시기와 구조를 달리 하는 여러 무덤들이 발굴조사되었다. 이들 무덤 간에는 분포, 구조, 장례습속, 껌문거리 등에서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혼강 유역의 초기 고구려 기층문화 양상과 그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림 12〉 29호 3단 돌무지무덤(『이 책』, 465쪽)

유적의 분포 관계를 보면 도로 건설로 인하여 유적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지만 발굴 결과 동쪽 지역은 주로 무덤이 자리하고 서쪽은 부분적으로 무덤(움무덤)이 있지만 대개는 집터, 재구덩이, 구상 유구 등이 확인되어 이미 유적 조성 당시부터 공간 분할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러 무덤이 분포한 양상을 보면 지세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즉 낮은 산비탈에서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움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정상쪽으로 갈수록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이 차례대로 축조되었다. 이것은 유적의 점유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선행하는 유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무덤 사이의 분포와 구조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먼저 돌덧널무덤은 구조적으로 시기 차이가 있다. 이른 시기에는 모난돌을 가지고 무덤 벽을 쌓아서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덤방을 축조하는데 비교적 큰 판자돌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고인돌(개석식)로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연속 과정으로 추론된다. 개석식 고인돌(大蓋石墓)이 혼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것은 분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이런 유형의 고인돌은 주로 길림 남부지역의 합달령(哈達嶺) 남쪽에서 조사되었는데 점차 그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초기 돌무지무덤과의 발전 관계를 밝히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31) 발굴보고서에서는 “檢骨葬”이라 하였는데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간골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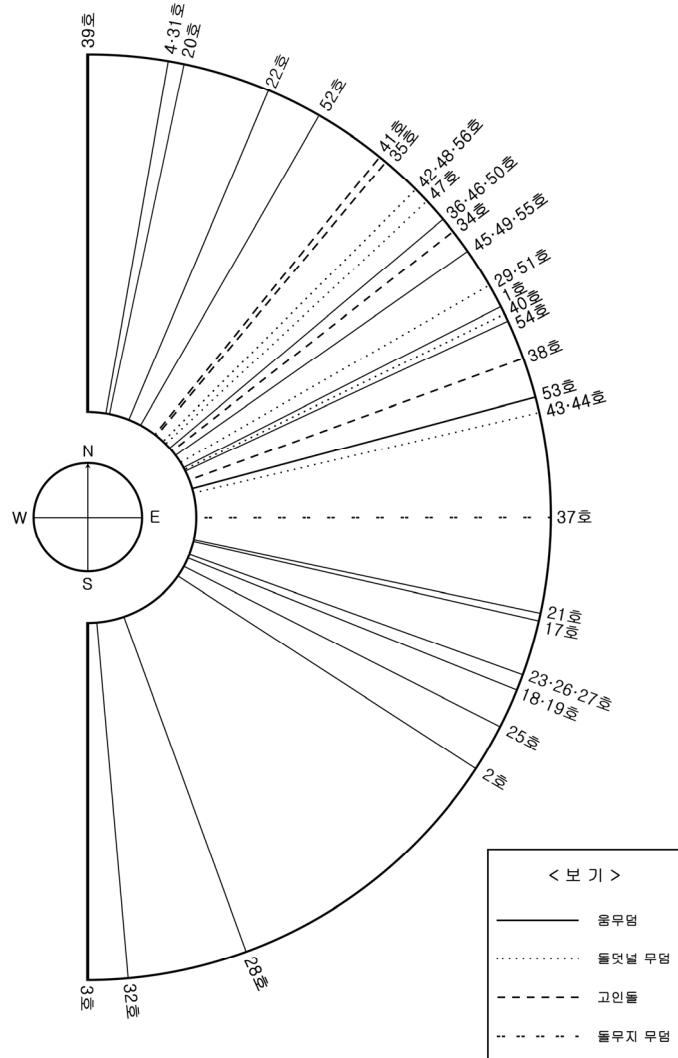
32) 金旭東, 「앞 글」, 1991, 120쪽.

문기에서도 독특한 것이 여러 가지 확인되었다. 일부 움무덤(3호, 18호, 26호, 27호, 49호, 54호)에서는 묻힌 사람의 머리뼈가 없는 상태로 발굴된 것이 있어 주목된다. 이런 특수한 문기는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무덤이 조성될 당시는 이미 복합사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분쟁(전쟁?)이 많았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유형은 움무덤 가운데에서도 늦은 단계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묻는 방법 가운데 어울무덤인 20호(움무덤)와 34호(개석식 고인돌)의 묻힌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자세를 한 특이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무덤에 따라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구분을 하여 보았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고 돌덧널무덤인 경우는 한 곳에 대부분 집중 분포하고 있어(제Ⅴ구역) 일정한 방향으로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덤은 주변 지세인 구릉이나 산줄기의 흐름에 따라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표 2>).

여러 사람을 여러 차례(多人多次)에 걸쳐 묻기를 한 21호(움무덤)와 36호(돌덧널무덤)가 있다. 21호는 35개체의 주검이 묻힌 가족집단무덤으로 보이는데 어른과 어린이(영·유아 포함)의 비율이 비슷하여 당시 사회 구성원의 사망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을 보면 대체로 어른은 동·서향인 반면 어린이는 남·북쪽으로 서로 다른데 무덤방에서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매장습속과 관련이 있는 듯 싶다. 껍묻거리를 보면 여성이 묻힌(19호와 20호) 무덤 구덩이에서는 청동 팔찌를 비롯한

<표 2> 여러 무덤의 무덤방 방향



옥제품(팔찌, 대롱구슬), 상아 치레걸이, 조가비 팔찌 등 질과 양에 있어 다른 곳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특수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36호 무덤은 묻힌 사람의 뼈가 3층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장례습속은 요북지역의 용두산과 구태 관마산 유적에서도 조사된 예가 있어 서로 비교되며³³⁾ 이것은 무덤의 구조나 유형보다 묻기의 방법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돌덧널무덤(36호)과 개석식 고인돌(34호·35호·43호)에서는 무덤방 옆에서 딸린방(널)이 조사되었다. 발굴보고서에는 자리한 곳에 따라 “邊箱”, “頭箱”, “附箱”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딸린방의 기능은 대체로 껌묻거리가 이곳에서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장(副葬)의 공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덤의 구조에서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내세를 위한 세계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움무덤 이외의 다른 무덤에서 화장(火葬)을 통한 묻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장의 장례습속은 신석기시대부터 요남 지역의 석묘(石墓)에서 유행한 것으로³⁴⁾ 점차 요북, 길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독특한 묻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먼저 화장을 한 방법에 있어 제자리 화장과 같은 무덤방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이 조사되었다.

제자리 화장은 돌덧널무덤(44호~46호), 적석형 고인돌(38호), 단 없는 돌무지무덤(37호)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화장 행위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뼈의 보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불에 탄 뼈는 잘 부서지고 조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³⁵⁾ 무덤방 밖에서 화장을 하였을 경우는 뼈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다.³⁶⁾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제자리 화장을 한 고고학 자료는 요남 지역의 강상 돌무지무덤을 비롯하여 태자하 유역의 여러 동굴무덤과 고인돌, 길림 남부지역의 개석식 고인돌 등이 있다. 그리고 36호 돌덧널무덤은 3층으로 나누어 주검을 매장하였는데 위쪽의 2개층은 화장을 하였지만 맨아래층(3층)은 그냥 바로퍼묻기로 주검을 처리하여 서로 비교된다. 이렇게 한 무덤방 안에서 묻는 방법이 다른 것은 장례습속의 차이보다 묻힌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화장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불의 온도와 산소의 공급 정도는 뼈의 색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³⁷⁾ 단 없는 돌무지무덤에서 조사된 사람뼈는 화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백색을 띠고 있어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산화된 것으로 여겨진다.³⁸⁾ 더구나 이 무덤은 무덤방 안에서 제자리 화장을 하여 껌묻거리도

33) 肖景全, 「앞 글」, 2010, 143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앞 글」, 1991, 342쪽.

34) 王嗣洲, 「遼東半島積石塚研究」, 『大連考古文集』 1, 2011, 237~258쪽.

35) Jacqueline I. Mckinley, “Bone Fragment Size in British Cremation Burials and its Implications for Pyre Technology and Ritual”,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1, 1994, pp. 339~342.

36) Karl J. Reinhard, T. Michael Fink, “Cremation in Southwestern North America: Aspects of Taphonomy that Affect Pathological Analysi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1, 1994, pp. 598~600.

37) J. L. Holden, P. P. Phakey and J. G. Cle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s of heat-treated human bon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74, 1995, pp. 31~32.

38) 같은 관점에서 환인 망강루와 서울 석촌동 돌무지무덤에서 발굴된 사람뼈도 높은 온도에서 화장이 이루어져 완전 산화된 상태의 회백색이나 유백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李新全, 「앞 논문」, 2008, 98쪽; 하대룡·이준정,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적석총 출토 화장(火葬) 인골(人骨)에 대하여」,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하), 2018, 226~227쪽.

불 먹은 자취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화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당시 사회에서 유행한 장례습속으로 화장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장은 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되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만발발자 유적의 37호 단 없는 돌무지무덤처럼 초기 철기시대에 혼강 유역의 무덤에서는 매장의 중요한 한 행위로 유행한다. 이것을 초기 고구려의 특수한 장례습속인 휘기 습속과 관련시키기도 한다.³⁹⁾ 근래에 환인 망강루 돌무지무덤에서 조사된 화장에 관한 자료는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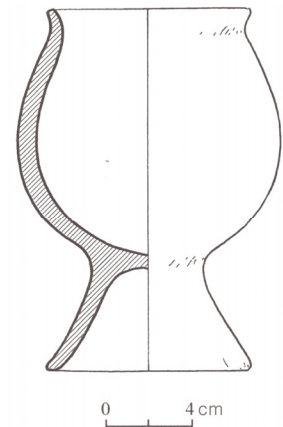
무덤은 공동체 속에서 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시 사회의 제의(祭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문화의 동질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36호 돌덧널무덤과 21호 움무덤에서 조사된 개뼈를 살펴보기로 한다. 36호의 딸린방에는 개 1마리가 딸려묻기(殉葬)로 매장된 상태로 21호의 26호 무덤 구덩이에 개 머리뼈가 끼묻기 되었다. 36호의 경우 단순한 매장의 의미보다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내세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지구에서는 주로 돼지뼈가 무덤에 끼묻기되어 있는 반면 요서지역의 하가점 하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 관련 유적에서는 돼지와 더불어 개뼈도 함께 묻는 매장 습속이 있어⁴⁰⁾ 시·공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발발자 유적은 한 지점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무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특징 있는 끼묻거리가 발굴되었다.

먼저 토기를 보면 36호 돌덧널무덤에서는 높이가 채 10cm도 되지 않는 작은 단지와 향아리들이 여러 점 찾아졌다. 이들 토기들은 일상 생활에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무덤에 끼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명기(冥器)의 하나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토기들이 신빈 용두산 고인돌에서는 여러 점 출토되기도 하였다.

34호 개석식 고인돌에서는 제기 같은 향아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런 유형의 토기는 길림 남부의 동풍지역 보산촌 동산 고인돌(1-8)을⁴¹⁾ 비롯하여 신빈 용두산 고인돌(2-17, 3-19), 구태 관마산 고인돌(1-5), 여순 강상 돌무지무덤(13-2) 등 여러 곳에서 찾아졌다(〈그림 13〉). 특히 합달령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보산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이런 토기를 통한 서로의 문화 전파나 교류 문제는 물론 시기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

31호(움무덤)의 단지와 35호(개석식 고인돌)에서 찾아진 묶음 줄무늬가 있는 단지가 주목된다. 31호 젓은 가는 모래를 바탕흙으로 사용하여 만든



〈그림 13〉 34호 개석식 고인돌
출토 제기형 향아리
(『이 책』, 319쪽)

39) 王綿厚, 「앞 글」, 2001, 907~908쪽.

40) 백종오, 『요하 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지식산업사, 2018, 365~3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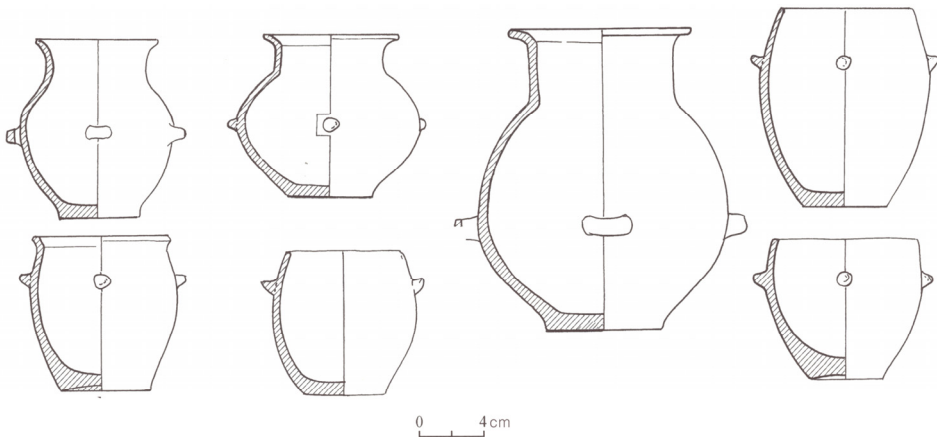
41) () 안의 번호는 유적 출토 유물의 고유 번호임.

갈색 계통의 토기로 몸통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다. 1쌍의 다리 모양 가로손잡이가 달려 있고 목은 바깥으로 경사지면서 약간 벌어진 모습이다. 그리고 35호 단지는 몸통에 5줄의 묶음 줄무늬가 있다. 이들 토기를 보면 기형 면에서는 31호 단지가 미송리형 토기와 비교적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사진 3〉), 35호 것은 묶음 줄무늬만 있을 뿐 기형은 많은 차이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송리형 토기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 가운데 하나로 동북지역에 광범위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토기와 서로의 관련성을 연계시켜 볼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36호 돌덧널 무덤에서 출토된 항아리와 단지가 주목된다(〈그림 14〉). 아가리가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고 몸통에는 2쌍의 띠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초기 고구려 토기의 정형성을 밝히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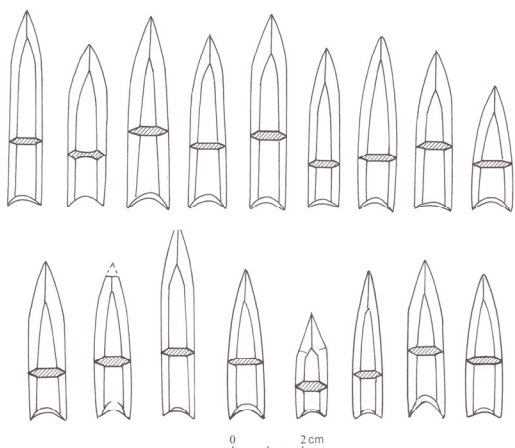
〈사진 3〉 31호 움무덤 출토 단지
(『이 책』, 사진 59-2)



〈그림 14〉 36호 돌덧널무덤 출토 토기(『이 책』, 395쪽)

화살촉은 만든 재질에 따라 돌화살촉과 뼈화살촉으로 구분된다. 이른 시기의 움무덤에서는 삼각 만입 돌화살촉이 주로 나오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단계의 움무덤이나 개석식 고인돌에서는 숭배 달린 것이 찾아져 시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5〉).

42) 李新全, 「앞 논문」, 2008, 308쪽 〈그림 6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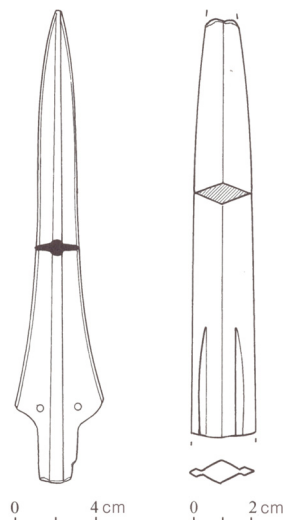
〈그림 15〉 움무덤 출토 화살촉
(1호와 2호, 『이 책』, 254쪽; 257쪽)



〈사진 4〉 21호 움무덤 출토 뼈화살촉
(『이 책』, 사진 53-5)

그리고 뼈화살촉이 21호 움무덤에서 집중적으로 출토(200여 점)되었다. 이곳은 가족 구성원이 묻힌 집단 무덤으로 한 무덤 구덩에 많게는 50점(17호)이 끼묻기되어 있었다(〈사진 4〉). 또한 그 무덤 구덩에서는 나무로 만든 화살통도 찾아졌다. 이밖에 유아나 어린이가 묻힌 무덤 구덩(6호, 7호, 23호)에서도 다량의 뼈화살촉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21호 움무덤의 끼묻거리를 보면 성별(性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끼묻기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린이 무덤 구덩의 뼈화살촉은 당시 사람들의 뚜렷한 내세관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끼묻거리 가운데 변형 동검이 20호 움무덤과 45호 돌덧널무덤에서 조사되었다(〈그림 16〉). 20호의 동검은 아래쪽이 직선을 이루면서 바깥으로 벌어지다가 직각을 이루며 좁아진 모습이다. 이러한 유형의 동검이 압록강 중류 지역이나 혼강 하류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지역적인 특징을 보여주며⁴³⁾ 동검을 통한 문화의 계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지역의 초기 고구려 기층문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45호에서 찾아낸 것은 검의 아래쪽이 없는 조각이지만 변형검으로 보인다. 이 동검은 환인 대전자 무덤,⁴⁴⁾ 화전 서황산둔 무덤에서⁴⁵⁾ 출토된 것과 비교된다.



〈그림 16〉 만발발자 무덤 출토 동검
(20호, 45호, 『이 책』, 267쪽; 390쪽)

43) 지병목, 「앞 글」, 2005, 88~91쪽.

44)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2, 1994, 72~73쪽.

45)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1, 1982, 143쪽.

V. 맺음말

혼강의 상류지역에 자리한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고구려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움무덤,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 등 40여 기가 발굴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만발발자 유적은 집터가 조사된 생활공간(서쪽)과 당시 사람들이 묻힌 무덤공간(동쪽)이 나누어진 것으로 밝혀져 일찍부터 공간 분화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덤의 조성 과정을 보면 낮은 지대의 움무덤부터 점차 높은 곳으로 갈수록 돌덧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 순으로 중복되지 않고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덤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조성된 움무덤 다음 단계의 돌덧널무덤은 초기에 모난돌로 벽체를 만들었지만 점차 판자들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축조 방법은 고인돌·돌무지무덤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일부 돌덧널무덤과 고인돌에서 딸린방(널)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껌문거리를 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움무덤 가운데에는 머리뼈가 없는 것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가 복합사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전쟁?)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러 사람을 여러 차례 묻기 한 움무덤과 돌덧널무덤은 핏줄을 매개로 한 가족 구성원이 한 곳에 묻힌 집단무덤으로 보인다.

한편 움무덤을 제외한 나머지 돌무덤에서는 화장을 통한 묻기가 조사되었다. 몇몇 무덤에서는 무덤방 안에서 화장한 제자리 화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례습속은 길림 남부의 합달령 지역 고인돌, 태자하 유역의 동굴무덤과 고인돌, 요남지역의 돌무지무덤에서도 조사되고 있어 서로 비교된다.

껌문거리 가운데에는 명기로 보이는 작은 토기들이(36호 돌덧널무덤) 찾아졌고, 초기 고구려 토기의 정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늦은 시기의 돌덧널무덤이나 돌무지무덤에서 조사되었다. 집단 무덤인 21호에서는 묻힌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뼈화살촉이 대량으로 껌문기 되어 있었다. 이렇게 특수 목적에 사용이 가능한 무기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압록강 중·하류와 혼강 하류에서 찾아지는 지역적인 특징을 지닌 변형동검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동검을 통한 문화 계승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만발발자 유적에서 발굴된 무덤의 연대는 껌문거리를 통하여 주변 자료와 비교 검토한 결과, 움무덤은 서기전 7세기 후반이나 6세기부터 서기전 4세기까지 축조되었고, 돌덧널무덤과 개석식 고인돌은 서기전 4세기 초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돌무지무덤은 서기전 3세기 끝자락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발발자 유적의 여러 무덤에서 확인된 고고학 자료는 혼강 유역의 초기 고구려 기층문화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구, 「達城 辰泉洞의 支石墓」, 『韓國史研究』 28, 1980.
- 김성철,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평고고연구』 1, 2009.
- 백종오, 『요하 유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지식산업사, 2018.
- 오강원,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 文化의 形成 過程」, 『北方史論叢』 1, 2004.
- 이중수,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 - 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야외고고학』 37, 2020.
- 지건길, 「청동기시대의 유적 : 무덤」,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지병목,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고구려의 국가 형성』, 동북아역사재단, 2005.
- 채범석 · 김을상, 『영양학사전』, 아카데미 서적, 1998.
- 하대룡 · 이준정,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적석총 출토 화장(火葬) 인골(人骨)에 대하여」,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하), 2018.
- 하문식, 「고조선 시기의 장제와 껍묻거리 연구」, 『白山學報』 83, 2009.
- 하문식, 「渾江 유역의 적석형 고인돌 연구」, 『先史와 古代』 32, 2010.
- 하문식, 「中國 遼北지역 고인돌의 성격」, 『先史와 古代』 40, 2014.
- 하문식, 『고조선 사람들이 잠든 무덤』, 주류성, 2016.
-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 康家興, 「渾江中游의 考古調査」, 『考古通訊』 6, 1956.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九臺市石砬山·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 4, 199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 辦公室,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占的調查與發掘」, 『博物館研究』 2, 1997.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 辦公室,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二十一号墓的 發掘」, 『考古』 8, 2003.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馮曄,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 出版社, 2019.
-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1, 1982.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馮曄, 『吉林省志: 文物志』 43, 1991.
- 金旭東, 「1987年吉林東豐南部盖石墓調查與清理」, 『遼海文物學刊』 2, 1991.
- 金旭東·安文榮·王志敏, 「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 -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發掘」, 『1999年中 國重要考古發現』, 2001.
- 董學增,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3.
-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2, 1994.
- 旅順博物館, 「遼寧大連新金縣碧流河大石盖墓」, 『考古』 8, 1984.

- 王綿厚,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研究』 12, 2001.
- 王嗣洲, 「遼東半島積石塚研究」, 『大連考古文集』 1, 201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994.
- 熊曾璣 等, 「撫順河夾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館刊』 3, 2008.
- 李新全,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李新全,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1, 2009.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雙砣子與崗上』, 科學出版社, 1996.
- 肖景全, 「新賓旺清門鎮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 2010.
- 崔玉寬, 「鳳城東山·西山大石蓋墓1992年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7.
- 許玉林·崔玉寬, 「鳳城東山大石蓋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0.
- 華玉冰,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2011.
- 橋口達也, 『彌生時代の戦い-戦いの實態と權力機構の生成』, 雄山閣, 2007.
- Jacqueline I. Mckinley, “Bone Fragment Size in British Cremation Burials and its Implications for Pyre Technology and Ritual”,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1, 1994.
- J. L. Holden, P. P. Phakey and J. G. Cle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s of heat-treated human bon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74, 1995.
- Karl J. Reinhard, T. Michael Fink, “Cremation in Southwestern North America: Aspects of Taphonomy that Affect Pathological Analysi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1, 1994.
- Tainter, J. A., “Mortuary practices and the study of prehistoric social systems”,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1978.

* 이 논문은 2020년 8월 24일에 투고되어,
2020년 9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10월 8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0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ditional and Basic Culture of the Early Goguryeo: Tomb of Tonghua Wanfabozi

Ha, Moonsig*

The site of Tonghua Wanfabozi are located in the upper valley of Hunjiang. As the result of excavation, coffin tombs, stone lined tombs, dolmens, and stone mound tombs dating from the Bronze Age to early Goguryeo were excavated. This site was divided into the living space where the ruins of the houses were excavated and the tomb space where people were buried at that time. Looking at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tombs, the coffin tombs were built in the lower area in the early days, and the stone lined tombs, the dolmens, and the stone mound tombs were built gradually toward the higher plac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head bones among the coffin tombs,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war because the society at the time was in a chiefdom society. The coffin tombs, which buried several people several times, and the stone lined tombs, appear to be a group tomb where family members are buried in one place.

Meanwhile, other stone tombs, except for the coffin tombs, were found to be buried through cremation. In some tombs, *in situ* cremation was found inside the grave pit. These burial customs were also investigated in dolmens in Hadaling area in the southern Jilin, cave graves and dolmens in the Taizihe basin, and the stone graves in Liaonan region. These burial practices among them are compared and researched. The subordinate coffi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space for funerary objects, was found in the stone lined tombs and dolmens.

The orientation of the head of a person buried in several tombs in the site of Wanfabozi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natural topography. Among the funerary objects were small potteries that appeared to be the mortuary gifts for being buried and those showing the formality of potteries of the early Goguryeo. More than 200 bone arrowheads were excavated from No. 21 coffin tomb, regardless of gender or age. This has to do with people's belief of afterlife at that time. Transformed-type bronze daggers, which are mainly found in the middle and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lower reaches of the Yalu River, have been excavated. They ar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succession relationship between Gojoseon and early Goguryeo.

The material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Wanfabozi site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basic culture of early Goguryeo.

[Key Words] tomb of Tonghua Wanfabozi, basic culture of the early Goguryeo, valley of Hunjiang, stone lined tombs, dolmens, stone mound tombs, cremation, transformed-type bronze daggers

